

보도해명자료 (‘15.2.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제조업 혁신 3.0 세부정책 지지부진..골든타임 놓치나(‘15.2.10, 아주경제)

□ 향후 산업별·주제별 분과 운영 등을 통해 제조혁신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,

○ 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 관련 세부과제들도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가겠음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문동민 과장(044-203-4210)
한용재 사무관(044-203-4214)

1. 보도내용(요지)

□ 작년 6월 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 발표 후 7개월이 지났으나, 세부 추진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제조혁신위원회도 개최되지 않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은 스마트공장, 13대 산업엔진 등 세부 대책별로 이미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

- * 11개 스마트공장 참조모델 개발(‘14.9), 2·3차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(‘14.9~, 300개) 등
- * 13대 산업엔진 세부추진계획 수립(‘14.9), 징검다리 프로젝트 착수(‘14.11) 등
- * 에너지신산업 육성대책 발표(‘14.7),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(‘14.11) 등
- * SC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(‘14.8)
- *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(‘15.3월 중 발표 예정)

□ 제조혁신위원회는 작년 7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 2회, 스마트공장, 소프트파워, 제조업 창업, 주력산업 등 분과별 비공식 회의를 8회 개최하였으며,

○ 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세부대책 수립과 이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음